

동물복지 축산 확대...농진청, 축종별 관리 지침 마련

‘동물복지 축산농장’ 사육 관리 기준 충족 기술 담야

우리나라가 2012년 도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4월 17일 기준 인증 농가는 520곳으로 늘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축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 관리 지침서’ 4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학계와 산업계와 협력해 축적

한 연구 성과와 현장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담은 것이 특징이다.

지침서는 △산란계 △육계 △임신돈 △분만돈 등 4개 축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과 시설 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란계 분야에서는 기존 케이지 사육을 대체하는 평사·방사·다단식 사육환경을 중심으로, 모래 목욕과 햇대 이용 등 닭의 자연 행동을 보장하는 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환경풍부화 요소를 적용할 경우 누적 폐사율이 0.2%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깃털 꼬기 행동의 원인과 개선 방법, 깔짚 관리 등 사양관리 기술도 포함됐다.

육계 분야는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닭의 행동 특성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 기준을 담았으며, 환경 풍부화 적용 시 스트레스가 4.3%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임신돈 분야에서는 기존 감금틀 사육을 대체하는 군사(무리) 사육 체계를 중심으로, 전자식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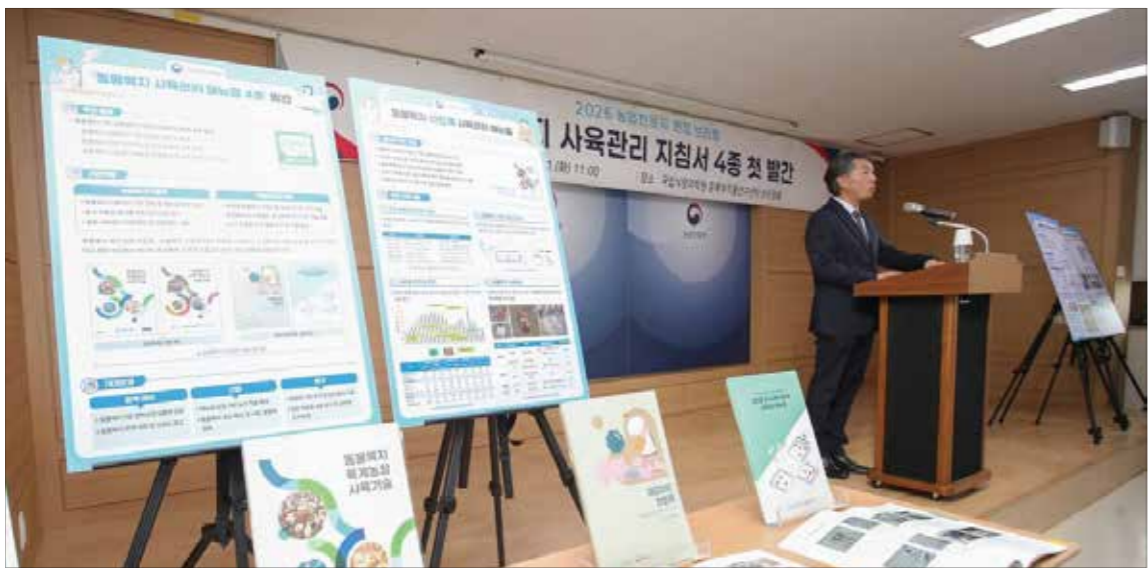
돈 급이기와 반스를 등 다양한 사육시설을 농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했다.

분만돈 분야는 어미돼지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돈의 생존율을 높이는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분만 직후에는 분만틀을 활용해 압사를 예방하고, 이후에는 개방해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적정 온도와 위생 관리, 난방장치 활용 등을 통해 자돈 생존율을 높이고 어미돼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지침서를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해 기술 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이번 4종 지침서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인증 전 축종으로 기술 기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 지침서는 농가 동물복지 사육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축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이 4월 21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 브리핑룸에서 “동물복지 사육관리 지침서 4종 첫 발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돈 급이기와 반스를 등 다양한 사육시설을 농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했다.

분만돈 분야는 어미돼지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돈의 생존율을 높이는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분만 직후에는 분만틀을 활용해 압사를 예방하고, 이후에는 개방해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적정 온도와 위생 관리, 난방장치 활용 등을 통해 자돈 생존율을 높이고 어미돼지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지침서를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해 기술 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이번 4종 지침서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인증 전 축종으로 기술 기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 지침서는 농가 동물복지 사육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축 스트레스 감소와 건강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시그넷, 농작업 피로 줄이고 관수 효율 높인다



▲점적테이프 사용 사진

최대 142m, 15cm는 116m, 10cm는 91m까지 균일도 90%를 유지해 장거리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스트립라인X 점적테이프’, ‘립 구조’로 내구성 강화

내구성 역시 점적테이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내구성이 낮은 제품의 경우 호스가 찢어지거나 점적기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트립라인X 점적테이프’는 세계 최초의 ‘립 구조’를 적용한 제품으로, 내외부에 설치된 립이 점적기와 테이프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내부에 설치된 두 개의 립은 점적이 용접 부위를 견고하게 유지해 설치부터 사용까지 점적기 손상과 분리를 막는 역할을 하며, 외부 립은 절단, 누수, 뒤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IR점적테이프·스트립라인X 점적테이프 추천

관수 관리는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최근 이상기후로 안정적인 수분 공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밀 관수에 적합한 고성능 관수자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농농의 스마트팜 전문브랜드 ‘시그넷’이 균일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IR 점적테이프’와 ‘스트립라인X 점적테이프’를 통해 관수 효율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점적테이프는 일반적인 호스 형태의 관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적기가 배치된 구조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물과 비료를 원하는 위치에 필요한 양만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어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노동력을 절감할 뿐 아니라 물과 비료를 뿌리 부근에 공급해 낭비를 줄이고, 염분

습도를 낮춰 병해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한다. 특히 최근 물 사용량 절감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적관수 시스템은 필수적인 재배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경농이 국내에 공급하는 점적테이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이리텍(Iritec)의 ‘IR 점적테이프’와 세계 1위 관수 전문기업 네타팜(Netafim)의 ‘스트립라인X 점적테이프’가 있다.

‘IR 점적테이프’, 균일도로 완성되는 관수 품질

점적테이프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균일도’다. 이는 앞쪽과 뒤쪽 점적기에서 배출되는 물량 차이가 판단할 수 있으며, 앞뒤 물량 편차가 클 경우 작물 생육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IR 점적테이프’는 점적 간격 20cm 기준

정밀 관수와 관비 시스템으로 생산성 향상

‘IR 점적테이프’와 ‘스트립라인X 점적테이프’는 두께가 0.2mm, 0.3mm로 얇아 토양과 테이프 사이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물, 비료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며, 작물 뿌리 주변의 수분 분포를 보다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작물 생육 단계별로 필요한 양분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 균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과수화상병 10분 만에 진단...현장 해결 기술 협력 본격화

청년 창업기업 기술로 ‘개발-검증-보급’ 전 과정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21일 익산 본원에서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군산원예농협,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네오바이오와 4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석형 원장이 강조해 온 ‘현장 중심·실행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매년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을 신기술로 신속히 차단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

이 있다. 핵심은 ㈜네오바이오가 개발한 과수화상병 현장 진단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형광 염료와 인공지능(AI) 기반 스캐너를 결합해 과수원 현장에서 즉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진단에 약 30분이 소요됐으나,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10분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비용 역시 기존 약 1만 원 수준에서 500원 수준으로 대폭 절감됐다.

이 기술은 경희대학교 특

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도 특허 출원을 마쳐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기술 개발부터 현장 실증, 보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한다.

농진원은 농식품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과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고, 군산원예농협은 전국 과수 농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의 현장 적용과 확산을 맡는다.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대학 공공기술 발굴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 농기계 공동

개발을 지원하며, ㈜네오바이오는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검증과 보급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농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 기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형 원장은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과 현장,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농진청, 현장 통합 관리 시스템 ‘현장 ON’ 구축

농촌진흥청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은 20일, 농업·농촌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 통합 관리 시스템(현장 ON)’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ON’은 기관장 현장 방문, 간담회, 전화 상담, 국민신문고, 부서별 수요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현장 의견을

하나로 모아 검토, 처리, 환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소속 연구기관과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던 현장 의견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의견은 향후 과제 및 사업 기획, 제도 개선 등에 반영되며, 단계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 문제는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049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02-582-4016 팩스: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02-582-4016
 이메일: press@nongupl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limes.com
 자매지: 농업경제
 발행기관: 농진원
 편집: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 배달연세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90,000원
 농축환경신문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농장 내부, 사료반·퇴사차·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왕겨 등) 방지 금지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